

내달 12일 '나라사랑 축제'

제주극동방송(지사장 한경은)은 광복절을 앞두고 8월 12일 제주극제컨벤션센터에서 두 차례(오후 3시·7시30분)에 걸쳐 '2022 나라사랑 축제'를 개최한다.

극동방송의 대표적 행사인 '나라사랑 축제'는 전국 13개의 극동방송 산하 어린이합창단 650여명이 대한민국의 광복을 기쁘하고 통일일의 소망을 노래하는 공연이다.

이번 나라사랑 축제는 총 6개의 무대로 구성된다. 제주극동방송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아보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통일 대한민국으로 가는 여정을 보여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무료 공연이며, 사전신청을 통해 모바일 초대장을 받아야 입장이 가능하다.

27일 탐라역사 강연회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관장 노정래)은 7월 문화의 날 행사로 27일 오후 4시 박물관 내 시청각실에서 강문규 전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을 초청해 강연회를 진행한다.

강 전 소장은 이날 탐라국과 칠성대 등 탐라역사의 정형성, 탐라역사 및 문화 재조명, 탐라왕국의 정치체제와 종교 문화에 대한 현대적 해석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클라리넷 매력에 흠뻑
양상블 릴로, 첫 정기연주회

제주의 젊은 클라리넷 연주자들이 뜻을 모으며 올해 결성된 '양상블 릴로'가 첫 정기연주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제1회 정기연주회는 27일 오후 7시30분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에서 열린다.

양상블 릴로는 클라리넷리스트 윤태형(제주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수석), 윤소영(제주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김우영(에뚜왈앙상블)으로 구성됐다.

이날 무대엔 클라리넷리스트 김태리와 피아니스트 김선정·김서현이 객원 연주자로 함께 오른다. 전석 무료다. 오은지기자

산방산 아래 펼쳐지는 청년예술가 무대

청춘마이크 제주 청춘순력도 27-28일 다채로운 공연 선배

청년예술가와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제주 '청춘순력도''가 지역 주민에게 문화교류의 장을 선사하고 있다.

(주)설문대가 지난 5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청춘마이크 제주 '청춘순력도''는 5월엔 '탐라순력도'의 '승보시사'를 재해석해 관덕정을 중심으로 제주 원도심에서, 6월에는 '천연사후'를 재해석해 천지연폭포와 인근 작가의 거리 등지에서 진행됐다.

7월 공연은 문화가 있는 날 주간인 오는 27일 '원앤원리'와 28



청춘마이크 제주 6월 공연 모습.

일 문화예술공간 '몬딱'에서 진행 된다.

이번엔 탐라순력도의 '산방배작' 기록화에서 착안해 청년예술가들의 배작 광경을 즐길 수 있다.

27일엔 산방산과 황우치해변이 내려다보이는 무대에서 한국창작 무용을 선보이는 '춤세제주'의 공연과 양여진의 가야금 연주, 하비오, Purple Dream, 조수경과

박정찬의 활력 넘치는 밴드 사운드까지 다채로운 무대가 예정돼 있다.

28일 '몬딱'에서는 소아베 브라스 콰르텟의 실내악 연주를 비롯해 마술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마술사 나무와 여러 버스킹 공연 경험을 쌓아온 제제, 어진별, 무드트리, Swell City 등 다양한 장르의 청년 예술가들이 출연해 무대를 가득 채울 예정이다.

한편 청춘마이크는 오는 11월까지 매달 마지막주 문화가 있는 날 주간 다양한 장르의 22팀 청년예술가들이 탐라순력도를 따라 제주도 전역에서 공연을 펼치며 일상 속 문화생활을 선사한다. 오은지기자 eijoh@ihall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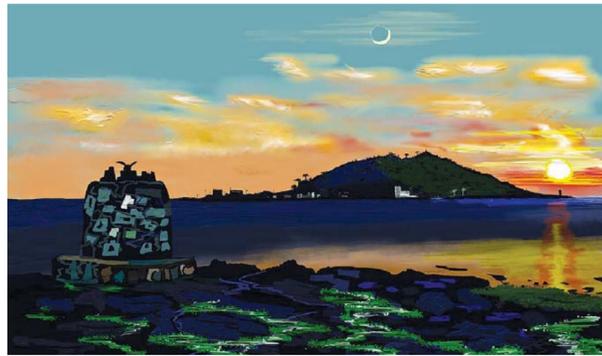
제주 비경 담은 '모바일 아트'전

고수향씨 두 번째 개인전 27-8월 3일 제주아트센터

유튜브 채널 '하르방TV'를 운영하고 있는 걸어 다니는 제주 인문학 여행작가 고수향씨가 지난 5월 서울에 이어 제주에서 두 번째 '모바일 아트(Mobile ART)' 개인전 &산과 길 이야기를 연다.

27일(오후 3시)부터 8월 3일(오후 3시)까지 제주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엔 '송악산에서 바라본 한라산' '다랑쉬 오름의 일몰' '비양도의 日, 月' (사진) 등 모바일로 그린 제주의 비경 20점이 내걸린다. 특히 그림마다 시를 엮어 불거리를 더한다.

고수향씨는 "회사를 퇴임하고 제주의 산과 길을 걸으니, 그 산과 길이 제게 새로운 지계(業)를 지어 주었다"면서 "앞으로 15년 동안 제주를 걸어 다니며 글을 쓰고, 유



튜브 하르방TV를 방송하고, 모바일로 그림을 그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주에 계신 분들께 할방, 하르방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유튜브로 방송하는 법과 모바일로 그림을 그리는 방법 등을 알려드리고자 한다"며 전시 초대장을 띄웠다. 오은지기자

8월 10일 도민과 함께하는 '마블림제'

탐방 참가자 40명 모집

제주문화예술재단은 내달 '도 무형문화재 송당리 마을제 의식재현' 개최하면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사업의 일환으로 송당 마을 일원에 사는 '마블림제 탐방'을 진행한다.

이번 탐방 프로그램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축소·취소됐던 '마블림제'를 8월 10일(음력 7월 13일) 개최하면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도민의 문화 참여권을 확대하고자 기획됐다.

탐방 코스는 송당 '마블림제' 관람에 이어 당오름 투어, 송당마을 신화 및 4대 제일(祭日) 현장 전문가 강의, 네트워크의 과정으로 이뤄진다.

탐방 참가자는 40명을 모집하며, 참가 신청은 구글폼(<https://forms.gle/6Pmqj7wuohaRJJiA7>)을 통해 하면 된다. 오은지기자



황학주의 제주살이 (44)

제주막걸리

성산포에 제법 아는 사람이 많다. 제주살이 초기에 근처 한적한 마을에 몇 해 살았던 탓이다. 그때 만난 사람들을 지금도 벗하고 지낸다. 연세 200만원 하는 농가에서 조천읍으로 이사 올 때 집을 사서 왔다. 연세로 살던 농가에도 마당이 넓었지만, 집을 사서 이사 온 지금의 집 마당은 더 넓고 깊다. 그런 마당을 관리하는 날엔 바로 제주막걸리가 있다.

성산을 외진 동네에 살 때 돌담을 따라 마실을 다니다 보면 굴밭이나 나무 아래 앉아 주민들이 막걸리를 마시며 나에게 아는 체를 하고 술잔을 권하기도 했다. 그래서 먹어보니 내가 생각하는 옛날 막걸리와 달리 담백하고 구수한 생탁주의 그 라이트한 맛이 그만이었다. 그 후 제주막걸리를 애정하게 됐다. 요기가 되고, 천천히 판생각 하며 나누어 마실 수 있어 좋다.

어느 저녁 술술 걸어 내려가 한 잔 하려고 혼자서 동남 사거리 작은 술집에 갔다. 절대로 관광객이 올 수 없는 술집에 앉아 제주막걸리와 두부김치를 먹는데 한 테이블 건너에서 누군가 '신형철'이라는 이름을 거론했다. 그때가 제주에 이주해 내려온 2014년 겨울이었다.

신형철은 1976년 생이니까 그때엔 삼십대 중반의 약관으로, 문단에 막 글 잘 쓰는 평론가로 알려지기 시작한 무렵이니 글 쓰는 웬만한 사람들도 아직 그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자가 많을 즈음이었다. 나는 눈이

번쩍 뜨이며 신형철의 첫 평론집 '몰락의 에티카'까지 주어 대며 이야기에 열중하는 중년의 사내가 궁금해졌다. 차림새로 보니 마치 잡자다 아무거나 좇아걸치고 나온 동네 주민에 영남없었다.

나는 가만히 술집 주인을 불러 "저 분이 누구시냐?"고 물었다. 마을에서 가게를 하는 단골 손님이라 했다. 나는 다시 "그럼, 문학을 하는 분이신가?"하고 물었다. 아니라고 했다. 문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전공자이고 일 또한 문학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나는 외람되지만 술집 주인에게 그분을 좀 불러달라고 부탁을 넣었다. 그러자 그녀는 별로 망설이지 않고 내 테이블로 건너왔다. 그래서 인사를 나누게 됐는데, 더욱 놀라운 건 나는 시 쓰는 아무개라고 소개하자 내 시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자기는 그냥 책을 좋아하는 논쟁이 정도라 했다. 가게에서 손님 없을 때 책을 보고 저녁 시간엔 지인들과 막걸리를 먹는 게 일과인 자라는 것이다. 그때 나는 다시 한번 문학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제주 막걸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비슷한 것일 것이다. 문학이란 독자, 작가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위한 것이며, 내가 좋아하는 제주막걸리 또한 주변의 세상 사람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위한 것이다. <시인>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여름방학 '호시탐탐 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 동반 가족 대상프로그램 '호시탐탐 박물관'을 운영한다. '호시탐탐 박물관'은 8월 7일부터 20일까지 매주 수~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에 운영하며, 회당 20가족이 참여할 수 있다. 국립제주박물관이 새롭게 개발한 지도형 활동지와 함께 상설전시장의 문화재를 스스로 탐구한 후 색필름을 활용한 문화재 꾸미기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정부 지원사업 잔여예산 신청자 모집

신청 자격 제주시 노형동, 연동, 해안동 소재 상업용 건물 소유자

호텔, 사우나, 공장, 병원, 마트, 창고, 냉장/냉동시설, 식당, 학원, 종교시설 등 전기다소비 시설 우대



설치비용 75% 무상지원

- 고효율 최신 기자재 설치
- 전기요금 절감효과 탁월
- 경제수명 30년 성능보장



설치사례 : 서울사우나 태양광99kW



설치비용 95% 무상지원

대상 : 도시가스 사용건물

- 전기 생산 및 온수생산
- 전기요금 및 급탕 연료비 절감
- 제주국제공항, 드림타워 운영중

모집기간 : 예산 소진시 까지

정부 지원사업 상담/접수

제주슬라에너지(주) 742-5775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esolar.co.kr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S전담기업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정부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